

임진년(壬辰年) 용(龍)이 던지는 메시지, 융합과 조화

The Message of Harmony and Balance Brought in 2012,
the Year of the Dragon

“『이아익(爾雅翼)』에 머리는 낙타(駝)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鹿), 눈은 토끼, 귀는 소(牛), 목은 뱀(蛇), 배는 조개, 비늘은 잉어(鯉), 발톱은 매(鷹), 발바닥은 호랑이(虎)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나오는 용(龍)에 대한 설명이다. 이처럼 용은 여러 동물의 장점을 가져와 형상화시킨 상상의 동물로서 어떤 동물보다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상의 존재이다. 해마다 연초에는 그 해 띠 동물에 대한 의미와 상징 찾기가 벌어지는데, 임진년(壬辰年) 용의 해를 맞아 띠 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 떠들썩한 느낌이다. 용의 해, ‘용’을 통해 21세기 우리에게 용이 던지는 메시지를 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최고의 존재, 용

용(龍)은 권력의 신성함을 보증하는 상징물로서 건국의 시조나 위대한 제왕의 등장에 항상 관여해 왔다. 백제 무왕이나 백제의 계승자를 자처한 견훤, 고려 왕조 왕건 모두 용과 연관이 있는데, 용에 대한 상징적 힘이 보편화 되면서 용은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임금을 가리키는 단어에 ‘용(龍)’자를 붙인다. 왕의 얼굴은 용안(龍顏), 임금이 앉는 자리는 용상(龍床)·용좌(龍座), 임금의 옷은 용의(龍衣)·용포(龍袍)라 하였으며, 왕과 관련된 기물에는 대부분 용의 모습을 장식하였다. 용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뛰어난 인물로 비유되기도 한다. 등용문 고사도 그 중 하나이다. 중국 황하 상류의 협곡인 용문(龍門)은 급류가 매우 빨라 아무리 큰 고기일지라도 웬만해서는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한 번 오르기만 하면 그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이처럼 각고의 난관을 뚫고 입신출세를 하는 것을 ‘용문에 오르다(등용문, 登龍門)’라고 하고, 이를 상징하는 그림과 문양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래서 과거라는 관문을 통과해 출세를 꿈꾸던 조선 시대 선비들의 문방안의 기물들에도 등용문 고사가 담겼다. 또 용은 비를 가져오는 우사(雨師)이고,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이며, 악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기도 했다.

우리 건축, 용

용은 우리 건축과도 연관이 깊는데, 그것은 바로 상량문이다. 목조 건물의 최상부 부재인 종도리에는 건물 연혁과 기원문을 적은 상량문을 적는데, 상량문 맨 앞뒤에 용(龍)과 거북(龜)을 주로 썼다. 이는 재액을 방지하는 문자로, 용이 수신(水神)으로서 거북과 함께 물과 관련된 동물이기에 목조 건물에 붙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였다. 이를 증명하듯 1997년 11월 경복궁 경회루 연못의 준설작업 도중에 북쪽 하향정(荷香亭) 앞 연못 바닥에서 청동용상이 발견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화재로 불탄 경회루를 1867년(고종4)에 재건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연못에 넣었던 청동용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이다. 근정전 중수공사 때에는 ‘水자 부적’과 ‘용그림 부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水자 부적’은 붉은 색 장지에 작은 크기로 ‘龍’자 1,000여 자를 써서 큰 ‘水’자 한 글자를 만든 부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용은 건국 신화와 설화, 신앙, 사상, 미술품, 지명,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와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융합과 조화, 21세기의 용

용은 여러 동물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기에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일컬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다고 과연 최고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든다. 내로라하는 여자 연예인만 골라 그들의 예쁜 눈, 코, 입 부위를 합성하면 부분은 예쁘지만 어딘가 어색한, 결코 미인이라 할 수 없는 인물이 탄생된다. 그런 점에서 ‘용’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 동물의 장점을 뽑아 만들었으며, ‘조합’보다는 ‘융합’과 ‘조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융합과 조화, 용에서 보듯이 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진행형 열쇠 말이다. 건축사들이 만들어내는 건축물도 장점(요소)의 나열이 아니라 융합과 조화에 힘을 기울이고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 융합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2012년 임진년 용이 우리에게 말해 준다. ■



기량 | Ki, Yang
국립민속박물관 전세운영과장

약력

-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